

광주 고려인마을 해설사들, 여수서 관광 활성화 해법 찾다

2027년 고려인마을 방문의 해 앞두고 해설 전문성·관광 경쟁력 강화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이 2027년 ‘고려인마을 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여수에서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13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주민관광청 소속 해설사 20여명은 지난 12일 여수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지를 둘러보며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여수 배움여행’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고려인마을 활성화 주민참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다른 지역의 우수 관광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고려인마을 관광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을 맞는 2027년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해설사들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주요 행

사장과 이순신광장, 진남관 유물전시관, 고소대, 오포대, 고소동 벽화마을 등을 차례로 탐방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에서는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봤으며, 이순신광장과 진남관에서는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해설기법을 익혔다.

이어 고소대와 오포대, 고소동 벽화마을에서는 역사유적과 공공미술, 골목길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한 사례를 살펴보고 고려인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해설사들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골목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역사문화 자원과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현재 광주 고려인마을은 주민관광청을 중심으로 고려

인문화관과 흥범도공원, 문빅토르미술관, 고려방송, 중앙아시아 테마거리, 고려인마을특화거리 등을 잇는 마을둘레길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인 선조들의 항일 독립운동과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조상의 나라로 귀환해 새로운 공동체를 일군 고려인동포들의 삶과 문화를 알리고 있다.

고려인마을은 이번 교육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해설과 문화체험, 중앙아시아 음식문화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해설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부형 고려인마을주민관광청 해설사회장은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해설 역량을 강화하고 고려인마을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고려인마을 해설사들이 여수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고려인마을 제공 제공

순천, 여수10·19 추모전야제 개최

순천시와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18일 신대천 일대에서 ‘제78주년 여수10·19사건 주간 추모전야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날에 있다, 기억을 잇다’를 주제로 여수10·19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의 아픈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며 그 의미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청년기획자 5명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 역사적 기억을 문화예술로 풀어낸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평화문화 한마당’이 진행된다. ‘평화의 길’ 전시와 동백꽃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수10·19사건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올해 창단한 여수10·19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이 펼쳐지며, 오후 6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된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MY광양 앱’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난 12일 시청 창의실에서 ‘MY광양 앱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 기능 개발 계획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MY광양 앱’은 시청 정보와 행정 서비스 신청·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플랫폼이다. 2025년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 올해 9월 기준 회원 4만 3,100명을 확보했다.

현재 ‘MY광양 앱’은 시청·읍면동 소식, 맞춤형 행정서비스 검색(400종), 행정서비스 온라인 신청(120종),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공공시설 통합예약 등 기본 서비스 외에도 일자리·생활정보 확인, 생활불편 신고, 위기이웃 SOS 제보, 시민 정책제안 등 총 27종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시

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서비스와 AI 기반 맞춤형 기능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로는 별도 로그인 없이 도서 검색·대출 조회·도서포인트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MY도서관’, 행사와 신청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는 ‘MY캘린더’, 장난감을 검색·대여·예약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 등 7개가 있다.

이 밖에도 24시간 행정정보를 안내하는 ‘생성형 AI 챗봇’, 관심사와 이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천하는 ‘나의 AI비서’, 걸음 수 측정과 걷기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워킹365’ 등 7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카드 결제시스템 도입과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구비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기후부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확보

곡성군이 기후부하환경부로부터 석곡 연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계획비 국비 3억원을 확보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석곡면 연반리와 당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해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해 기존 마을하수처리장을 하루 40톤에서 80톤 규모로 확충하고, 오수관로 약 6.9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총사업비 57억 원을 확보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구조적 결함 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곡성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천 수질과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지역의 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오수관로 확충은 생활하수의 무단 방류를 줄이고 보다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과 공정 관리에도 힘을 방집이다.

/이영규 기자

민선9기 구례군 공약이행평가단 공식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9기 구례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민선 9기 군정 방향 및 공약 실천계획을 설명했으며, 단장 및 부단장 선출을 통해 운영팀 씨가 단장, 이옥주 씨가 부단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번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 절차를 거쳐 선발된 군민 7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오는 2028년 10월 1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공약사업 이행 상황 평가 ▲공약 실천계획 변경사항 심의 등 군민의 시각에서 공약 이행 전반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길선 구례군수

는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가 중요하다”며 “평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영팀 공약이행평가단장은 “단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의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는 ▲전 군민 대상 월 3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미래인재 성장소득 지급 ▲미래핵심역량개발원 유치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구례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선섭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